

수신: 고양시장

참조, 경유: 고양시 건축정책과, 도시개발과, 녹색건축과

제목: 누수도 못 잡는 시공사, 수분양자 전원 사전 점검 다시 하게 하라.

6월 21일 000동 지하0층 주차장에서 촬영된 영상의 캡처 화면입니다.



풍동 엘로이는 지하주차장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바, 누수를 해결하지 못해서 빨간색 표시부와 같이 빗물을 모으는 형태의 “배관”을 벽면에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빨간색 표시부 배관을 숨기기 위해서 노란색 표시부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한 바, 해당 구조물은 빨간색 표시부의 배관을 가리기 위해서 석고보드를 설치하기 위한 가림판으로, 현대 건축

물에서는 위와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지도 않거니와, 위와 같은 구조물은 누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건축물의 외관상 문제를 가리기 위해서 상습적으로 사용되는 구조물입니다.

이에, 고양시에서는 풍동 엘로이 000동 지하0층 주차장의 벽면 구조의 설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렇게 설계도와 시공결과물의 구조적인 차이가 발생하는 건물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완 조치 없이 사용승인이 이뤄질 경우, 입주예정자협의회 및 개별 입주예정자들이 고양시장과 담당 부서 공무원들 개개인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할 것임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샵일산엘로이 수분양자